

현대로템 무주기지 성공 안착 최선 “사실 확인 없는 선거 개입”

군, 항공우주산업 투자지원 특별 전담팀 가동...3000억원 투자 대응 행정지원 체계 구축

무주군이 항공우주산업 투자 유치에 따른 행정 지원을 위해 '항공우주산업 투자지원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무주군에 따르면 전담팀은 노정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5개 분야 7명으로 구성됐으며, 현대로템(주)이 무주군에 3천억 원을 투자해 항공우주 분야 연구·제조·시험·양산을 아우르는 완결형 연구단지와 우주 발사체 엔진 제조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담팀은 투자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 인허가, 환경,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민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와 기반시설 확충,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 대응 등을 포함한 윈윈형 행정지원 체계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78% 이상이 국립공원 및 수변 보호구역 등 개발 규제 지역임에도 자연환경 보전과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무주군이 항공우주산업 투자 유치에 따른 행정 지원을 위해 '항공우주산업 투자지원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국내 대표 방산 대기업인 현대로템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지리적 이점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내세워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현대로템 무주기지 조성은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 현대로템과의 3자 협약 체결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무주군 적상면 방리1 일원 76만330

m² 규모 부지에는 초음속 덕티드 램제트 엔진과 극초음속 이종 램제트 엔진, 우주발사체용 메탄 엔진 등을 생산하는 연구·제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무주군은 현재 투자 선도지구 공모 사업을 준비 중이며 민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과 인근 지역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해 성장공익인 사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주=손승기 기자

진안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판매시설 기공식 개최

진안군은 홍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진안군은 지난 6일 오후 2시 진안읍 단암리 산 20번지 일원(진안IC 앞)에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기반조성 준공 및 판매시설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부지 조성 사업의 준공을 기념하고, 앞으로 조성될 홍삼 판매시설의 본격적인 착공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현



재 진안군 곳곳에 분산돼 있는 홍삼 판매시설을 한 곳에 집적화해 체계적인 홍보와 판매 환경을 구축하고, 진안 홍삼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선정됐으며 향후 진안 홍삼 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동부권 발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판매시설은 총 24개소 규모로, 지역 인삼·홍삼 농가와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시설은 지상 1층 규모로 연면적 약 2,986m²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159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2021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 갖고 협력 방안 논의

장수군은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장수군전문건설협회(회장 이대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업 종사자 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축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 속에서 건설업 역할의 재조명하고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이대운 장수군전문건설협회장, 협회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타지역 업체 대비 장수군 지역업체 경쟁력 확보 방안 △최근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발생한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농축산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업 역시 지역경



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준식·이우규 진안군수 출마예정자, '허위보도' 기자 경찰 고발

6·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전북 진안군수 선거가 언론 보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준식·이우규 진안군수 출마예정자들은 지난 5일 특정 언론인의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찰 고발을 냈다.

두 후보 측은 이날 서울아리엔스 소속 진안 담당 A기자와 신문사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진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 측은 해당 기자가 세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해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예정자 측이 문제 삼은 보도는 크게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 관련 보도다.

먼저 부동산 관련 보도에서 해당 기사는 고준식 출마예정자가 사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우규 출마예정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두 출마예정자 측은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반론 요청도 없이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보도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후보자 공천 심사 관련 보도다.

해당 기사에서는 입후보자 5명 가운데 전춘섭·동창욱·한수용 후보만 '적격' 판정을 받았고, 고준식·이우규 출마예정자는 '이의신청자'로 분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두 출마예정자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두 예정자는

부적격자가 아니라 서류미비로 인한 서류보완을 요청 받았고 이후 보완요청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심사 절차를 따치고 있는 후보를 마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예정자 측은 이번 고발의 배경으로 취재 윤리의 부재와 사실 확인 절차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특정 진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선거 개입 행위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두 후보측은 "허위보도지료를 무제한 배포하고 있는 특정 후보측의 문자내용을 수집해놓았다, 강력히 대응 할 것이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후보 측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보도와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와 보도 과정에서의 비방 목적성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진안군수 선거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설가온농원, 관광농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은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업회사법인(주)설가온농원과 관광농원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정현수(주)설가온농원 대표, (주)광화문아미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관광농원 조성 and 연계해 주민 편익 증진과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설가온농원은 협약에 따라 2027년까지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일원 약 2만 9천여m² 규모의 관광농원을 조성해 장수군에 공공 기여한다.

관광농원은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농업·체험·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 농촌관광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관광농원에는 전통식품 가공시설과 농산물 체험농장을 비롯해 전시·판매관, 숙박시설, 카페,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설가온농원은 필요 인재를 지역 인재로 우선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가 일자리 지원 서비스 추진

무주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가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난 6일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주군로컬잡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는 안정적인 일손을 공급하는 상생형 일자리 지원 정책이다.

특히 '농가 일 모아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농업인과 구직자를 신속하게 연결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농작업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구직자는 단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돼 농작업 중 사고나 부상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자와 장갑, 토시 등 농작업 안전용품이 최초 1회 제공된다.

농업인에게는 구직자 1인당 하루 1만원이 지원된다. 종식비 6,000원과 간식비 4,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관의 구직자에게는 교통비 1만 원도 별도로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농작업 하루 전 평일 오후 5시 30분까지 무주군로컬잡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손승기 기자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본격 시작

진안군은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주와 관내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주 250명과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관내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150명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비롯해 고용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인권 보호 등), 범죄 예방, 근로자와 농가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